

### RI-EUL PORTFOLIO

BY JO HYUN JOO 2022.06.14 - 2022.07

### CONTENT

01

#### 기획

- 주케 선컹 -

02

#### 화면 설계

- 페르소나 -
- 와이어 프레임 -
- 프로토 타입 -

03

#### 코드 구현

- 메인 코드 구현 -
- 서브 코드 구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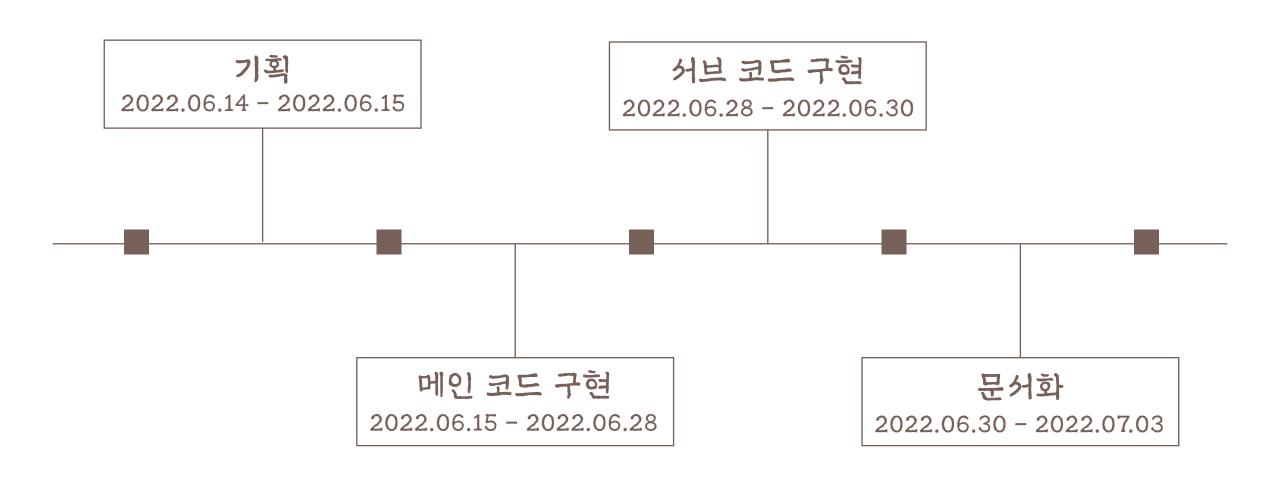
RI-EUL PORTFOLIO

04

### 마무리

- 소감 -

### TIMELINE



### 기획

- 주제 선정 -



#### 문화에 한복을 입히다.

'ㄹ'은 한글이 낯선 외국인에게도 한글을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고 기억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과 나의 작품도 그렇게 세계에 제시되고 수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 21세기 한복을 만들다.

세계 공용의 아라비아 숫자 '2'와 닮은 형태를 가진 한글의 네 번째 글자 'ㄹ'을 브랜드명으로 정한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드는 디자이너 김리을이 만들어낸 브랜드입니다.



### 기획

- 주제 선정 -









한국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한복을 만듭니다.

전통 한복의 외형적인 멋은 라인과 원단이라 생각한다는 그는 그 중 한복 원단의 멋을 살려 자카드 실크, 색상 배합, 손 자수 디테일 등의 전통 요소들을 21세기 수트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한복이 명절에만 입는 특수 복장이 아닌 하나의 스타일이 되길 바란다는 그는 자신의 브랜드 'ㄹ'의 슬로건과 브랜드 철학에 따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이들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비로 협찬을 제공하였습니다.

### 화면 설계

- 페르소나 -

####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 (21세)

폴란드계 미국인 어머니와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인.

15살 무렵 K-POP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 후 2년간 태껸을 배우고 한글을 독학하는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다.

2017년 처음 한국에 오게 되면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마침내 2021년 내일은 미스트롲2에 대학부로 참가하여 외국인 최초로 준결승전에 진출하며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이제는 어엿한 트롯 가수가 된 마리아는 한국 고유의 음악 장르인 트롯을 부르는 만큼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고 싶은데 전통 한복은 불편해 꺼려진다.

무대의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멋있으면서도 보다 편한 한복은 없을까?



"무대에 설 때 한복을 입고 싶은데 전통 한복은 불편해.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이 있을까?"

### 화면 설계

- 페르소나 -



"스케이트를 탈 때에도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 차준환 (20세)

대한민국의 남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역 배우를 했던 어린 시절, 많은 배역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배우의 특성 상 꿈을 키우기 위해 시작했던 피겨 스케이팅이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전부가 되었고 나라를 대표해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가 되었다.

나라의 이름을 걸고 대회에 나가는 것에 어깨가 무거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늘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활용한 의상을 입고 세계대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케이트를 타는 데에는 불편한 한복 탓에 실현해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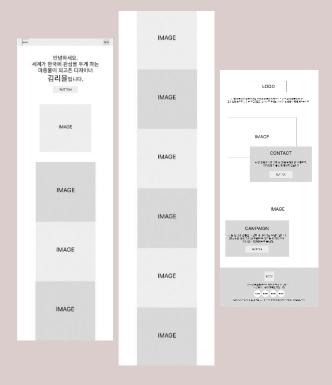
입고 스케이트를 타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복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 화면 설계

- 와이어 프레임 -



MAIN PAGE - FULL SIZE -



MAIN PAGE - MOBILE SIZE -

#### SUB PAGE - FULL SIZE -



#### SUB PAGE - MOBILE SIZE -



- 프로토 타입 -











SUB PAGE - FULL SIZE -

SUB PAGE - MOBILE SIZE -







MAIN PAGE - FULL SIZE -

- 메인 코드 구현 -



```
<div id="slider_img">
  <img src="img/index_img/slider_img.png" alt="리율">
  <div class="shadow"></div>
  </div>
```

<HTML>

<CSS>

CSS의 Animation으로 이미지가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효과를 코드로 구현하였습니다.

- 메인 코드 구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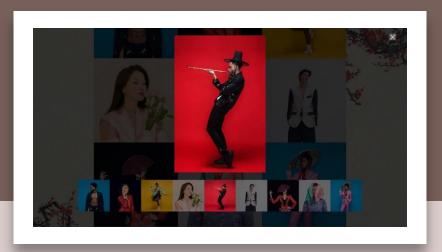
```
@keyframes bounceUp{
    from{transform: translate(-50%, -50%);}
    to{transform: translate(-50%, -65%);}
}
.container:hover .zoom{animation: .3s alternate ease infinite bounceUp;}
```

<HTML>

<CSS>

CSS의 Animation으로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아이콘이 위로 튕겨오르는 듯한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 메인 코드 구현 -



아이콘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고 하단의 작은 사진을 클릭하면 상단의 이미지가 변경되도록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 서브 코드 구현 -



```
.show{display: block;}
.hide{display: none;}
.logoImg:hover .noColor{display: none;}
.logoImg:hover .color{display: block;}
```

```
sponsor click effect
".logoing").click(function()(
    ("suponso photo img").attr("src", "img/about_img/sponsor_img" + ($(this).index()) + ".png");
    $("suponso_photo img").attr("src", "img/about_img/sponsor_img" + ($(this).index()) + ".png");
    $("supolor).removeclass("hide");
    $("sub).children(".color").addClass("hide");
    $(this).children(".color").addClass("show");
    $("sup).children(".color").addClass("show");
    $("sup).children(".color").addClass("sup).addClass("sup).addClass("sup).addClass("sup).addClass("sup).addClass("sup).addClass("sup).addC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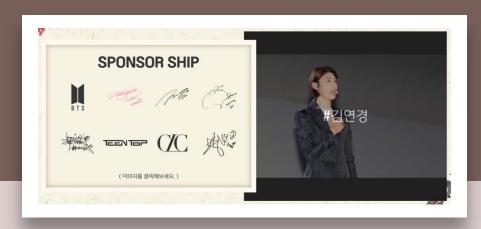




<JAVASCRIPT>

로고나 사인을 클릭하면 사진이 변경되도록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 서브 코드 구현 -



```
(1. sponsor ---)
(d) 'dd*-sponsor plot*)
(d) 'dd*-sponsor plot*)
(d) 'dd*-sponsor plot*)
(d) 'dd*-sponsor std*/fd>
(d) 'dd*-sponsor std*/fd*-sponsor std*/fd*-spon
```

```
$("#sponsor_photo img").mouseenter(function(){
    $("#explain").fadeIn(200);
});

$("#explain").mouseleave(function(){
    $(this).fadeOut(200);
});
```

<HTML>

<JAVASCRIPT>

사진이 변경되고 그 사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사진 속 인물의 이름도 변경되도록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 마무리

이번 포트폴리오 작업은 아쉬운 점이 조금 남아있는 작업이었지만 배운 것도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지난 번 포트폴리오에서는 JAVASCRIPT를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보았었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사용해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작업에서는 처음으로 CSS의 Animation을 사용해보았기 때문에 색다른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llustrator로 SVG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어 다양한 SVG를 활용해 작업해본 것도 이전 포트폴리오에서는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사용한 JAVASCRIPT는 JQUERY의 문법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음 작업에서는 JQUERY가 아닌 JAVASCRIPT의 문법을 사용한 작업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배운 점도 아쉬운 점도 많이 남은 작업이었기 때문에 다음 작업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보완해서 더 만족스러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 THANK YOU